

카카오, 대형엔터사들 품는다

“한류스타 등 톱배우들 엔터사 대상 극비리 실사진행...인수 막바지 단계” 콘텐츠 기획·글로벌 유통까지 조준 성사됐던 영화·드라마 큰 변화 생길 듯



다들 주목
카카오가 이만큼 높은 배수들이 소속된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여러 곳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IT기업을 뛰어넘어 최근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는 카카오가 대중문화를 망라하는 콘텐츠 기획과 제작 그리고 글로벌 유통까지 아우르는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자회사 카카오M과 합병한 카카오는 음악과 영상사업을 통합하는 별도 법인 출범을 공식화한 상태다. 음악플

랫폼 멜론을 통한 음악사업 확장에 이어 영상분야 진출도 본격화한 가운데 연예계를 대표할만한 배우 중심의 엔터테인먼트사 여러 곳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어 그 향방과 업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일 “한류스타가 소속된 대규모 엔터테인먼트사부터 톱배우 여럿을 거느린 유력 매니지먼트사 몇 곳이 인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

다”며 “극비리에 실사를 진행해왔고 현재 인수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앞서 국내 최대 음원유통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카카오M을 출범시켰고, 이를 통해 로엔 산하 레이블인 페이브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플레이엔터테인먼트, 크래커엔터테인먼트 등 음반제작사 및 가수 매니지먼트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들 기획사에는 아이유 에이핑크 허각 소유 몬스타엑스 우주소녀 빅톤 더보이즈 등 인기 가수들이 소속돼 있다. 현재 추진하는 배우 중심의 엔터테인먼트사 인수가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성사된다면 그야말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공룡’이 탄생하는 셈이다.

실제로 카카오는 5월17일 이사회를 열

고 “음악과 영상 사업을 아우르는 콘텐츠 사업을 위해 별도 법인을 출범시킨다”며 “적극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을 통해 IP(지적재산권), 콘텐츠를 담당하는 핵심 자회사로 별도법인을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는 이번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인수를 시작으로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통한 광범위한 IP 확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유통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도전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은 당장 영화와 드라마 제작 및 유통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이다.

한동안 영화계에서는 카카오의 영화투자재급 진출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뜨거운 시선을 받는 카카오의 공격적인 행보가 어떤 식으로든 시장 재편을 이끌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해리 기자 g0ff1024@donga.com

한류스타 송승헌 한중일 동시공략

내달 '사임당' 8월 8일 中영화 개봉



송승헌

배우 송승헌이 한국과 중국, 일본을 순차 공략한다.

송승헌은 7월과 8월 각각 일본과 중국에서 자신의 출연작을 공개하고, 9월 국내에서는 새 드라마에 출연한다. 비슷한 시기에 각기 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그의 활약에 기대가 모아진다.

일본에서는 송승헌이 2017년 출연한 SBS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가 7월 20일부터 현지 지상파 도쿄TV에서 방영된다. 한류스타가 등장하는 국내 드라마가 현지 지상파에서 방영되는 일은 흔치 않다. 앞서 '사임당 빛의 일기'는 국내 방송 당시 이를 간격을 두고 일본 한류전문 채널 KNTV에서 동시방송 수준으로 방영된 바 있다.

송승헌의 중국 활동은 더 큰 기대를 모은다. 송승헌이 출연한 현지 영화 '대폭격'이 8월17일 중국에서 개봉된다. 촬영을 마친 지 3년 만이다. 대외적으로는 '한한령'이 완화되는 분위기라고 하지만, 중국의 최대 동영상플랫폼 아이치이에는 2017년부터 국내드라마 편성이 전무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송승헌의 출연작이 개봉하는 사실은 눈여겨봐야 할 일이다. 100억 대작으로 알려진 '대폭격'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영화로, 송승헌은 미국에서 파병 온 한국인 파일럿 역할을 맡았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알쓸연잡

(알아두면 쓸데있는 연예 잡학사전)

영화 '허스토리' 관부재판...김학순 할머니 기자회견이 발단

27일 개봉하는 김희애·김해숙 주연의 영화 '허스토리'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제강점기 전쟁 피해 여성들이 소송을 제기해 처음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끈 역사적 재판을 다룬다. 이를 하여 관부재판. 1992년 12월25일 시작해 1998년 4월27일까지 진행됐다.



영화 '허스토리'

관부재판이 촉발된 계기는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면서다. 이전까지 공론화된 적 없는 위안부 여성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서울을 거쳐 그해 10월 부산에도 '정신대 신고 전화'가 개설됐다.

'허스토리'에서 김희애는 부산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자 부산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역할. 실제 모델인 김문숙 회장의 이력을 옮겼다. 여성경제인 주도로 개설된 신고전화에 8명이 피해 여성이 신고를 해왔다. 그 중 4명이 "일본의 사과를 받았겠다"며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관부재판의 시작이다.

관부재판은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오가면서 6년간 23번 진행됐다. 4명이던 원고는 훗날 10명으로 늘었다. 13명의 변

이해리 기자 g0ff1024@donga.com

연예현장.jpg

민서 첫 쇼케이스 "돌라보게 예뻐졌네"



가수 민서의 강렬한 변신이다. 민서는 20일 오후 서울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신곡 '이즈 후' 첫 무대를 선사했다. 작년 11월 윤종신 '총나'에 대한 애절한 답가 '총아'로 데뷔한 민서는 이날 발표된 신곡을 통해 리드미컬한 보컬을 보여준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퍼포먼스도 도전. 발라드 가수 이미지를 벗는다. 민서는 "정말 큰 도전이었다. 팬들도 주변사람도 다들 놀랐다. 강렬하고 역동적이라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비버리 힐즈 폴로 클럽 / 통가족이라 정말 부드럽고! 시원하다!!

통가족 통풍성이 좋고 발이 편한 망사 신사화

모델명: V-13
색상: 블랙
재질: 코팅소가죽

기능성 신사화 안솔 특허! (특허 제 28456 호)

바람이 술술~~~~ 시원함을 느껴보세요!!

할인가: **39,800원**

세련된 디자인에 통풍성과 위생까지!! 한 올 한 올 수직입으로 정성들여 만든 망사 수제화.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 우수한 통풍성으로 신발 내부의 공기를 순환시켜 발냄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준다. 부드러운 코팅소가족 재질로 발이 편하고 김혹이 좋아 장시간 신어도 불편함이 없다. 정장은 물론 캐주얼 복장에도 잘 어울리며 조정량으로 매우 가볍고 중후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정통 망사 신사화로 인기가 높다.

모델명: V-14
색상: 블랙
재질: 코팅소가죽

새털같이 가벼운 초경량 260g

할인가: 29,800원

(단, 3일간 한정판매)

(2컬레 이상 구입시, 택배비 무료배송)

사이즈 :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mm

* 신용카드 2~6개월 무이자 할부혜택! * 제품 하자시 6개월 무상 A/S

신는 느낌이 다릅니다!

정장, 캐주얼, 청바지, 어떤 복장에도 OK!
장시간 운전, 많이 걸을 때, 편안복장에도 OK!

통가족 신사화는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여 장시간 보행시에도 발의 피로를 현저히 줄여주며 특히 부드러운 외피는 발볼이 넓고 발을 조이지 않아 일반 신사화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착화감을 보여주며 연령층에 구애받지 않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정장 및 캐주얼 복장에도 잘 어울립니다.

모델명 T-2 (블랙)

모델명 T-3 (브라운)

모델명 T-4 (블랙)

모델명 T-6 (블랙)

NAVER **검색엔진** 진수테크소핑 **주거정보**

인터넷주문 : www.j1234.co.kr

제품구입 문의전화 : **1566-1788**
(토요일, 공휴일 주문가능)

입금계좌 / 우리은행 : 1005-301-396749 예금주 (주)진수테크
(택배비 2,500원 소비자부담) / 전제품 2컬레 이상 무료배송